

대전투데이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충남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등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김정환 kjhwan00@hanmail.net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현)는 21일 충남 테크노파크(TP)에서 제32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충남 TP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이공취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TP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관인 만큼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물이 기업생산 촉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행정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연구성과물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업에 제공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TP의 역할이 국비사업을 수행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오송 바이오투자처럼 자체적으로 특화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신청제출서류가 과도한 만큼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TP에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혁신센터 구축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대학 등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관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TP가 해줘야 한다”며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기업에 그 효과가 전달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천안의 웰니스스파 임상센터가 설립된 지 1년반 만에 홀몰로 전략하더니 최근 지역산업거점 스마트기반 구축사업에 아산시가 선정돼 정상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무리한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지원센터 설립 과정에서는 보여주기식 말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도에서 한명을 감사실장으로 파견했는데 실효적인 감사기능 수행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추진 중인 수소차, 2차전지 등 기본 산업전략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일부 정보의 업데이트가 늦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방 위원은 또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식품 등 충남의 3대 주력 분야에 대한 지역산업여건, 경쟁력을 분석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디스플레이 추진 공정센터 주민설명회가 소수의 주민만 참석한 채 감감이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디스플레이 장비 가운데 일부 장비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유해물질오염배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기경위,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김기룡 기자

제323회 임시회 4차 회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1일 충남TP에서 제32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충남 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의 연구개발 성과 전파 비효율성 문제를 비롯해 전문가 활용 미흡,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현)는 지난 21일 충남TP에서 제32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같이 질타했다.

이공회 위원은 “충남TP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관인 만큼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물이 기업생산 촉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행정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연구성과물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업에 제공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충남TP의 역할이 국비사업을 수행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오송 바이오투자처럼 자체적으로 특화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신청 제출서류가 과도한 만큼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장현 위원장은 “충남TP에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혁신센터 구축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대학 등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관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충남TP가 해야 한다”며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기업에 그 효과가 전달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철상 위원은 “디스플레이 추진 공정센터 주민설명회가 소수의 주민만 참석한 채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디스플레이 장비 가운데 일부 장비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유해물질 오염배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1 ()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1 ()

세계타임즈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1 ()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1 ()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1 ()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충남도의회,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1 ()

CTN 중경탐뉴스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1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1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1 ()

충남도의회 기경위,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1 ()

MBS

충남도의회, 충남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등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기업에 전달돼야”

2020 07 21 ()

“충남TP, 해당분야 전문가 있는데도 활용 안해”

2020 07 21 ()

금강일보

“국회·靑 등 세종시 이전 적극 환영”

최신웅 기자

與 충남도의원들, 세종시교육청 등 반색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및 청와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했다.

김득웅 의원(천안1)을 비롯한 민주당 도의원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뿐 아니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제”라며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20만 도민의 염원을 한 데 모아 중앙정부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 행정수도 완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도 “세종교육공동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향후 논의와 이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나라 재건의 대장정에 함께 하기로 했다”며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평을 다시 맞춰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국민 모두가 풍요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최신웅·김지현 기자 csu@ggilbo.com

충남도의회 “충남도,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 도할 전략 필요”

김기룡 기자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0일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21일 밝혔다.

기경위는 전날 제32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미래산업국의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먼저 안장현 위원장은 “그동안 충남은 화력발전에 따른 미세먼지·매연 등 환경피해, 선로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 등의 불이익을 감내해왔다”며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충남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정책, 그린팩토리 등 그린뉴딜의 핵심내용이 도의 추진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충남만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라”면서 “미래형 수소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 대응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은 충남이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도의 노력을 치하한 뒤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등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현지 생산하는 일본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는 최대화하면서도 기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자립능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영 위원은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충남은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도 그린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